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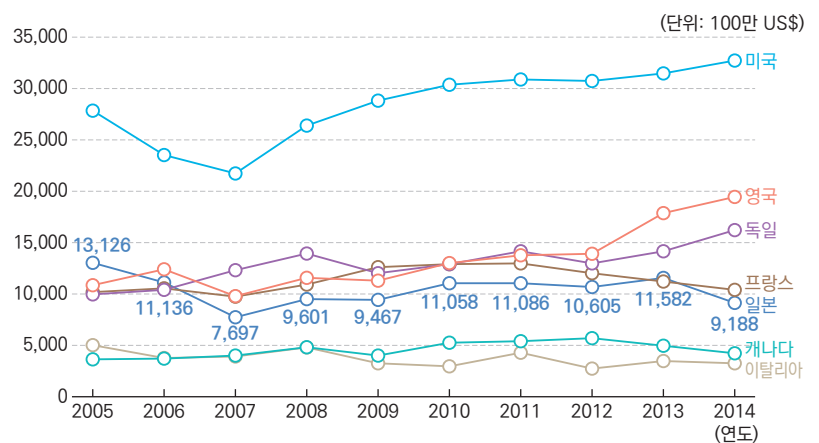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5대 공여국에 해당하는 일본이 2015년 개발협력헌장을 제정하여 ODA 사업의 재정비에 나섰다. 개발 협력헌장은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질적 성장, 평화구축, 글로벌 이슈에의 개입,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다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 ODA 사업의 수행주체 JICA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핵심지원전략을 설정하여 개발협력헌장의 이상을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보건, 경영철학, 교육, 재해위험 관리, 식수 공급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Japan Brand ODA 모델을 만들어 일본의 경험 및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머리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89년 원조액 규모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친 이후 1991년부터 10년 간 1위였던 것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함께 꾸준히 세계 5대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이다(그림 1 참조). 한편 국제협력 역사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은 2015년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개발협력헌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별 ODA 특징 및 “Japan Brand ODA”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주요 국가들의 ODA 추이 (순 지출액)



자료: OECD DAC

출처: JICA (2016), JICA 2015 Annual Report

일본의 개발협력헌장

2015년은 UN이 15년간 추진해 온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새롭게 발표한 해이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같은 해 2월 개발협력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헌장은 누구나 분쟁, 테러, 재난, 환경 파괴, 전염병, 가난, 사회적 서비스의 결핍으로부터 안전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Human Security)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질적 성장(Quality Growth)” 및 불평등의 완화이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관점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서, 포괄적(inclusive)이고 지속가능(sustainable)하며 탄력적(resilient)이고 빈곤 해소(poverty eradication)에 기여하는 성장으로 정의된다.

수혜국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으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제공, 기후변화 완화, 인적 자원 개발,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발, 재해위험 감소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평화구축(peacebuilding) 지원과 보편적 가치의 공유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남수단,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제적 개입(operational engagement) 강화이다. 이것은 UN의 MDGs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 노력,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과 강화이다. 이것은 새로운 개발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발도상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일본이 지원하는 원조사업에 여성 참여와 리더십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ODA 사업 내용

일본의 ODA 사업은 주로 일본국제협력단(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 의해 수행된다. JICA의 핵심지원전략을 각 지역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는 JICA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질적 성장, 평화구축, 글로벌 이슈에의 개입,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다섯 가지 모두를 핵심지원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및 재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공유를,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 증진을,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질적 성장, 빈곤 감소, 평화구축,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재난 위험 감소를 핵심지원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경제성장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수요 증가, 고령화, 도시화, 국가 간 개발격차 축소, 고등교육의 질 보장 등 다양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략적 중요성, 현안의 다양성, 지리적 접근성 덕분에 일본의 ODA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JICA는 개발협력현장의 다섯 가지 내용을 모두 이 지역의 핵심지원전략으로 채택하였다.

|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은 작은 규모의 토지와 인구, 지역적 고립성, 세계 시장과의 제한적 접근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지역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위나 식량·자원위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JICA는 주로 환경이나 재해 관련 영역에 대한 일본의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주요 전략으로 하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 재해 위기 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상교통수단 건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건 의료 기술 지원 등이 있다.

| 동아시아

일본 본토가 속해있는 이 지역의 안정적 발전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JICA는 지역적 안정성 유지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동아시아의 핵심지원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원은 주로 환경오염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지원은 자연 관리, 기업 경영, 공항 건설 사업, 중소기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중이다. JICA는 이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내 협력 증진을 핵심지원전략으로 설정하고, 전기발전, 교통 인프라 구축,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 증진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 남아시아

이 지역은 종교, 인종, 문화, 언어의 다양성이 특징인 동시에 소득격차와 종교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곳이다. JICA는 이 지역에 대해 질적 성장과 빈곤 감소, 평화구축과 재건,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 재난위험 감소를 핵심지원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편, JICA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반시설의 질 제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사회 구현, 포괄적 개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역동적인 성장 지원, 포괄적 개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중동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평화구축, 질적 성장 제고, 친환경적 기여 및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을, 유럽에 대해서는 평화 공고화, 산업 발전 및 환경보존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과 강화를 위해 JICA는 “Japan Brand ODA” 모델을 만들어 일본의 경험 및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 경영철학, 교육, 식수공급, 소농인 지원, 광산개발 등과 관련된 총 9개의 모델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 모자보건과 경영철학 모델은 다양한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구가하고 있지만, 중앙 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빈곤과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아메리카 역시 1차 상품과 수출 상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세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JICA가 설정한 이 지역 핵심지원전략은 “중위소득의 덫(Middle-Income Trap)” 극복을 위한 경제적 기반시설의 질 제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사회 구현,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포괄적 개발 증진이다.

|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산업 발전이 지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JICA는 1993년부터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열 정도로 아프리카 지역에 관심이 많았으며,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포괄적이고 탄력성 있는 사회, 평화와 안정을 이 지역 지원사업의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JICA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역동적인 성장 지원, 포괄적 지원을 통한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이 지역에 대한 핵심지원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중동 및 유럽

JICA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삶의 보장과 평화구축 증진, 질적 성장 제고, 친환경적 기여 및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을, 남유럽 및 동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평화 공고화, 산업 발전 및 환경 보존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Japan Brand ODA”를 통한 일본식 발전 모델 확산

개발협력현장의 네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과 강화를 위해 JICA는 “Japan Brand ODA” 모델을 만들어 일본의 경험 및 기술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 MCH), KAIZEN 경영철학, 수학 및 과학 교육, 재해 위험 관리, 식수공급, 연구실 기반 공학 교육(Laboratory-Based Education, LBE), 회랑 발전 접근(Corridor Development Approach), 소농인 지원 프로젝트(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Project, SHEP), Kizuna 광산 개발 프로그램을 주제로 총 9개의 모델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 모자보건과 KAIZEN 경영철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모자보건(MCH)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모자보건 증진 경험을 바탕으로 JICA는 개발도상국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JICA의 접근은 직접적으로 건강 섹터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까지 포괄하며, 건강 섹터에서의 개입은 각 국가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건강 보호사 양성, 임신부 및 산모 교육, 모자보건(MCH) 핸드북 배포, 백신 접종률 증진과 영양상태 개선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성공 사례로 수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지역 산파의 41%가 JICA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했으며, 필리핀에서는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도입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받는 의료시설 확대 덕분에 임신부 및 산모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또한 1994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일본의 MCH 핸드북이 소개된 이후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이 핸드북이 보급되어 모자보건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KAIZEN 경영 철학

KAIZEN은 일본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품질과 생산성 관리 철학으로, 팀워크, 자의의존(self-reliance), 창조성, 독창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JICA는 1983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30여 개국의 산업,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KAIZEN 철학을 소개해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방글라데시를 들 수 있다. KAIZEN 철학 도입 이후 에티오피아에서는 200개 이상 기업이 37.2%의 생산성 향상과 55.2%의 폐기물 감소의 성과를 내었고, 탄자니아에서는 67개의 공공의료원에서 병원 직원의 업무효율성 증가, 환자의 대기 시간 감소, 청결도 상승, 환자 만족도 상승, 병원 수입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JICA는 방글라데시 공공행정 직업훈련센터 (BPATC)를 통해 KAIZEN 행동강령을 전파해 오고 있으며, 약 20,000명의 정부 직원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 JICA (2016), JICA 2015 Annual Report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index.html> 에서 2016.5.21. 인출)
 - JICA (2016), Japan Brand ODA 브로셔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index.html> 에서 2016.5.21. 인출)